유구한 역사와 예술·파리지앵의 낭만 품고 유유히

센느 강 위로 인도교인 퐁데자르와 멀리 알렉상드르 3세 다리가 보인다.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세계의 문화수도

파리 오디세이

〈6〉

파리와 센느강

퐁뇌프 다리 위 앙리 4세의 기마상.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연주를 하고 있다.

파리를 처음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센느 강이 보이는 파리 시내에 들어서며 실망하곤 한다. 한 나라의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이라면 서울의 한강 정도를 떠올렸을 텐데 길게는 2 km에 가까운 한강의 폭과 길어봐야 300 m에 불과한 센느 강의 폭을 비교하자면 그런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파리의 도시 분위기에는 딱 이 정도 규모의 강이면 족하다는 것을, 여행자들은 이내 깨닫게 된다.

강의 너비가 아담한 만큼 센느 강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아니 돼 있었다. 지금은 관광용 유람선, 주거용 소형 선박, 상업용 대형 선박 등이 이따금씩 지나다니고, 둑에는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채우고 있다. 하지만 나폴레옹 3세의 도시계획이 진행되기 전인 19세기 중반까지도 시내 한 복판에 온갖 종류의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가 있을 정도로 북적거리는 강이었다.

현재 파리 시청 앞 광장의 옛 이름인 그레브(greve) 광장은 모래와 자갈(gravier) 등이 주로 하역되던 항구였는데, 시위나 집회를 하는 시민들이 자주 모였던 것을 근거로 '그레브'라는 단어 자체에 '파업'의 뜻이 담기게 됐다. 당시에는 파리 시내의 센느 강 위 다리에도 건물이 들어서 사람이 살았다.

파리지앵에게 센느 강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었다. 18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쓰여진 독일 소설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베스트셀러 '향수'의 한 대목이다.

"그 시절 파리에는 열세 명의 향수 제조인이 있었다. 〈중략〉 나머지 한 사람은 시테 섬을 통해 오른쪽 강둑과 연결되는 샹주 다리 위에 살았다. 이 다리 양쪽으로는 모두 4층짜리 건물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노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탄탄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도 한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미관 또는 위생 상의 문제로 센느 강변의 재정비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혁명 이후 가속화됐다. 흐름의 선두에 있던 것은 1607년 초반 건설된 퐁뇌프(Pont Neuf) 다리다.

'새로운(neuf) 다리(pont)'라는 뜻의 퐁뇌프는 당시로서는 유일하고도 파격적으로 다리 위에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이 산책을 하듯 다리를 건너다 도중에 쉴 수 있도록 반원형의 석조의자를 설계했다. 다리 한 가운데 위치한 광장에는 완공 당시 왕이던 앙리 4세의 기마상이 자리하고 있다. '새로운 다리'라는 뜻과 달리 현재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가 됐다.

제방 쌓기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앙리 15세 광장(지금의 콩코드 광장)이 건설된 1753년 이후였다. 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769년 국왕의 명령에 의해 다리 위의 집들이 철거됐고, 마지막으로 1811년 강의 좌안과 시테 섬을 잇는 생 미쉘 다리의 건물들이 사라지면서 다리 위에서 센느 강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됐다.

센느 강변 정비와 함께 식수 공급 사업이 마무리돼, 시민들은 이제 수원지에서 온 물만으로도 식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로 센느 강의 양쪽을 잇는 다리의 건설은 더욱 활기를 띨 수 있었다. 1870년대에만 15개의 다리

강따라 다리·건축물·광장 거느려
예술가·젊은이들 몰려들어 교감
시민들 시위·집회때 주무대도
도시발전 일등공신 '파리의 심장'

■ 센느강

연장 : 12.8 ㎞ (총연장 776 ㎞)
깊이 : 3.4 ~ 5.7 m
최대 폭 : 200 m (그르넬 다리)
최소 폭 : 30 m (몽트벨로 강변)
다리 개수 : 37개 (인도교 4개, 철교 2개 포함)
〈자료=파리시청〉

가 건설됐다. 국제박람회가 10여년에 한 번씩 열렸던 1855~1900년 사이 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화려한 다리들이 속속 선을 보였다.

금박으로 치장한 조각과 화려한 가로등이 있어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맞춰 개통했다.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삼국동맹에 맞설 목적으로 1891년 맺어진 프랑스-러시아 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황제인 알렉상드르 3세의 이름을 붙였으며, 1896년 다리 건설의 초석을 놓은 것은 그의 아들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였다.

다리 우안 쪽 기둥에는 "1900년 4월14일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에밀 루베가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고, 알렉상드르 3세 다리를 개통했다"고 적혀 있다.

센느 강의 낭만은 보행자들만을 위해 지어진 인도교에서 더 진하게 느껴진다. 대표적인 인도교로 퐁데자르를 들 수 있다. 퐁뇌프 다리의 전경이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기 때문에 화가들이 진을 치는데 어쨌든 '예술가의 다리'라는 이름처럼 화가 뿐 아니라 거리 음악가 등 예술가와 젊은이들이 많다. 최근에는 다리의 난간에 연인들이 이름을 써서 자물쇠를 묶어두는 '사랑'의 장소로 더 알려졌다. 1990년대 일본 교토 시는 가모가와 강에 퐁데자르와 같은 형태의 다리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퐁데자르가 19세기 풍의 인도교라면, 파리 동쪽에 있는 시몬느-드-드부아르 다리는 21세기형 산책로다. 센느 강의 다리 중 가장 최근인 2006년 완공된 것으로 국립도서관 앞에서 출발해 우안으로 연결된다. 재개발로 새롭게 단장된 베르시 구역을 거닐던 산책자들은 시원스러운 강바람을 맞으며 이 다리를 통해 국립도서관 방향으로 걷는다.

센느 강과 오랜 역사를 함께 한 동반자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강변의 고서적상이다. 이들로부터 그 옛날 다리에 온갖 상인들이 몰려 있고, 항구가 활기를 띠던 시절을 상상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6세기 보부상들이 기원인데, 1649년 퐁뇌프 위의 서적 판매행위가 전면 금지되면서 강변으로 퍼지게 됐다.

1789년에 이들을 칭하는 단어 '부키니스트(bouquiniste)'가 사전에 등재됐고, 1859년에는 시가 이들의 판매대를 규격화하고 정식으로 세를 걷었다. 현재 240여명의 부키니스트가 900여개의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센느 강은 더 이상 파리지앵들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리와 강변은 자동차에 그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느 강이 도시를 부유하는 산책자들에게 끈임 없이 사랑 받는 이유는 강이 지니고 있는 그 유구함이 아닐까. "미라보 다리 아래 센느 강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는 시구로 유명한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는 손 꼽히는 센느 강 예찬론자다. 그는 '두 강변의 산책자'라는 수필집에서 "센느로 내려 가자. 아무리 쳐다봐도 도저히 싫증이 나지 않는 저 사랑스러운 강으로"라고 썼다.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파리=정상필 객원기자
sphiljeong@gmail.com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1등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